그동안 石築復原을 마치고 治材에 全力을 다하던 南大門 補修 工事는 드디어 지난 十月 三十日 午後三時 尹서울特別市長、安補佐官、朴敎育局長、文文化財管理局長과 文化財委에서 金庠基、金載元、李相佰、金元龍諸委員이 參席한 가운데 立柱式이 擧行되었다。

◎ 梨大史學科에 拓本展示會 開催

梨大史學科에서는 오는 十一月 十九日부터 十日間 同大學附屬博物館에서 拓本展示會를 開催한다。內容은 甘山寺址石佛 銘文을 비롯한 金石文이 主가되며 黃壽永氏 所藏 軍威三尊石窟 脇侍菩薩光背와 秦弘燮氏 所藏 南山新城碑 四點이 贊助出品되리라고 한다。

◎ 奉化 西洞里 三層石塔에 舍利藏置發見

奉化 春陽中學校 校庭에 있는 東西二基의 石塔의 解體補修가 進行中인 바 西塔 三層塔身에는 方形舍利孔이 있을 뿐이었으며 東塔 初層塔身에서는 지난 十月 二十八日 舍利藏置가 發見되었다。이에 對하여서는 黃壽永、鄭明鎬兩氏가 十一月 七、八日 現場과 舍利를 調査하였는 바 現在 郡廳에 保管인 主要品目은 다음과 같다。

滑石圓壺(有蓋)一個、綠色圓底舍利甁(有유리蓋)一個、白色舍利三粒 土塔九九個(底面에 圓孔이 있고 陀羅尼經으로 짐작되는 紙本墨書片이 挿入되었다)

◎ 歐州展示品歸環展示會

歐羅巴展示를 마치고 지난 十月 二十一日 無事히 서울에 歸着한 國寶一五二點은 그동안 點檢을 끝맞추었으며 十一月 十九日부터 一個月間 豫定으로 國立博物館에서 歸還報告展示會를 열고자 그 準備를 서두르고 있다。

◎ 梨大土器展示會

梨花女大博物館과 同大學史學科에서는 共同主催로 文化財愛護期間의 한 行事로 最近에 새로 入手된 土器 七十餘點을 가지고 展示會를 開催한다고 한다。場所 同博物館陳列室、期間 十一月 十一日부터 十八日까지

南大門 通信 (四)

金 正 基

지난 六月 六日에 着工된 石築復元工事는 九月末까지 南·北面石築과 基礎工事를 一旦끝내었다。나머지 磚石과 東·西階段部分의 工事는 女墻 工事와 함께 建物組立工事 후에 繼續될 것이다。

虹蜺門밑에 가로놓이는 문지두리石은 調査結果에 따라 復元되었다。

기둥、昌枋、平枋、大樑등의 組立에 對備할 構造材의 治木은 十月末까지 거의 끝났다。

建物의 橫力을 支持하는 가장 重要한 構造材인 昌枋은 平柱와의 이음새에 있어서 特殊한 鐵物補强으로 外面에 나타나지 않도록하여 建物의 傾斜 또는 部分的인 動搖를 防止하도록 하였다。

高柱一本을 再生함에 있어서는 老朽弱化된 部分을 補强處理하여 옛 솜씨를 남기게 하였다。

보(樑)를 固定하는 方法은 鐵帶로서 外面에 補强한 것이었으나 調査에 依하여 元來는 산지 鐵을 使用하였고 以前의 重修時에 折斷 破損된 위에 鐵帶를 부착시켜 固定한 事實이 나타났기에 이번에는 防腐、防虫處理를 한 괴목을 산지로하여 復原하였다。

十月 三十日 文化財保存委員과 서울特別市長、文敎部文化財管理局長 및 一般來賓들이 參席하여 立柱式이 擧行되었으며 現在下層의 拱包部分이 組立되고 있다。

(一九六二、一一、五)

金山寺 通信 (二)

申 榮 勳

屋蓋 全面을 飜瓦하도록 方針을 樹立하고 腐損材를 交替하기 위하여 各部分의 木部解體도 同時에 續行하였다。